

恐慌에 대처한 프랑스 織物産業의 發展樣相을 위한 經濟史的 考察

禹 英 煥 *

目 次

- | | |
|-----------------------------|-----------------|
| I. 序 論 | V. 背景變化에 따른 恐慌 |
| II. フ랑스 織物産業의 位置와 産業構造의 二元性 | VI. 恐慌에 대한 打開試圖 |
| III. 歷史的 背景 | VII. 結 論 |
| IV. 生產資本의 組織化의 理論的 分析 | |

I. 序 論

産業革命의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였던 織物産業은 産業構造의 高度化(産業革命의 進展의 結果) 함께 따라 老衰, 또는 斜陽産業部門으로 간주되곤 했다. 이러한 見解는 20 세기 초반부터 설득력이 있어 恐慌을 견디지 못하고 没落된다는 論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맞추어 오히려 恐慌을 發展의 革新의 기회로 삼아 높은 成長率을 유지시키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恐慌이 지닌 相反된 兩面性을 엿볼 수 있고, 동시에 恐慌을 성급하게 分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觀點에 맞추어 우리의 主題인 恐慌도 알아보고 또한 具體的인 事實分析을 추가하여 分析의 正確度를 기하며, 方法論에 대한 뒷받침을 삼으려 한다.

選擇된 對象으로 프랑스의 織物産業(1974 ~ 1979)이 적합하다고 보는 理由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斜陽産業이라고 볼 수 있는 織物産業이 先進經濟인 프랑스의 經濟에서 位置를 상실하지 않은 점

② 期間이 1974 ~ 1979년인 것은 産業構造의 革新으로 1973년 까지의 好況이 1974 ~ 1975년 동안의 不況으로 産業發展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克服하려던 시기였던 점이다.

우리의 主題인 恐慌은 再生産의 어려움이라고 說明할 수 있다. 再生産은 生產過程과 生產品의 순환과정 사이의 연결의 결과이다. 即 돈 - 生產品 - 商品 - 돈의 方式으로의 回轉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 回轉을 위한 每過程들은 密着하여 相互聯關의이다. 따라서 織物産業에 미치는 恐慌도 每過程을 通過해서 把握이 可能한 것이 아니고 相互聯關에 따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 本 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社會科學大 助教授

우리는 回轉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分析의 方向을 결정 지으려 한다. 왜나하면 回轉의 어려움이 資本蓄積의 條件도 形成시키고 또, 다음段階의 再生産을 위한 資本回轉 方式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兩面의 相對概念에 依存하는 데는 다음 狀況이 證明을 해준다.

① 恐慌을 단순하게 피하려고 既存의 需要에 順應할 것인가?

② 恐慌을 克服하기 위한 目的으로 産業組織을 革新시켜 資本動態化를 기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分析을 위한 양식을 具體化시키고 同時に 恐慌에 대처하는 織物産業의 發展樣式도 說明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分析을 5 단계로 전개하여 보면 ① 먼저 프랑스 織物産業을 紹介하고 ② 革新的 發展樣式을 成立시킨 歷史的 배경을 알아본다. ③ 革新的 樣式을 理論的 背景(生產資本의 組織化)에서 分析한다. ④ 한계점을 알아보고 結果的으로 나타난 恐慌을 分析한다.

⑤ 發展樣式을 고수하려는 恐慌打開方式에 관심을 둔다.

II. 프랑스 織物産業의 位置와 産業構造의 二元性

프랑스 織物産業이 産業發展의 主軸으로서 役割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産業이 지닌 動態力은 무시할 수 없어 生產組織內에서 獨立産業部門의 位置를 維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막강한 雇用能力(특히 여성 근로자)과 産業間, 地域間의 均衡能力으로 國民經濟와 國際經濟에 차지하는 비중은 주목할만 하다. 1977년도의 統計를 통하여 確認해 보면 선정이된 爽直한 活動을 가진 2573個의 織物企業¹⁾은 全體 劍勞者의 6.4%를 雇用하고(52%는 여성 劍勞者) 全體 附加價值生產에 4.5%를 기여하고 있다.

國際貿易面에서 보면, 전체 輸出의 6%를 담당하고, 全體 輸入의 7.3%를 吸收한다. 規模가 큰 企業들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織物産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寄與度가 엿보인다. 500名 미만의 從業員을 가진 企業들이 55.5%를 점하고 있다. 판매액도 거의 5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雇用人員과 販賣額을 통하여 소수의 大企業의 活動이 注目된다. 몇개의 그룹기업이 同産業을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4個企業에 의한 市場占據率을 보면 아래와 같다.

AGACHE-WILLOT 그룹: 10%

DOLLFUS-MIEG 그룹 : 6%

RHONE-POULENC : 4%

LAINIERE DE ROUBAIX: 3.5%

1) Ministère de l'industrie, L'enquête annuelle déntreprise 1977, Paris
P13-21.

그룹企業들에 의한 市場 장악은 織物產業의 資本集約的 傾向에 기인한 것이다. 1950년 初에는 단순하게 勞動集約的 產業이 있으나, 1960년 中盤에는 變化가 뚜렷하였고 1970년대에는 重化學 工業과도 比較 可能할 정도였다.

資本集約的 傾向을 促進시킨 것은 織物產業과 石油化學工業의 統合의 잇점 때문이다. 即 2個 產業部門에 投資하는 그룹기업의 活動이 必要時된다.

그림표 1 규모에 따른 직물기업의 분류

기 업 규 모	기 업 수	종업원수		매상 전체 %
		전체 %		
10 ~ 19명	504	2.3		2.1
20 ~ 49명	817	9.2		8.3
50 ~ 99명	393	9.1		8.2
100 ~ 199명	316	14.5		12.3
200 ~ 499명	205	20.4		16.4
500명이상	106	42.7		49.0
기 타	232	1.8		3.7
計	2,573	100.00		100.00

Ministère de l' industrie, Ibid.

"化學纖維는 製絲를 위해 30%와 織組를 위해서 40%가 消費되었다." 2) 새로운 部門인 化學纖維工業의 發達로 織物消費의 50%는 企業에 의해 中間財로서 나머지는 消費者들에게 直接 消費되어 사실상 織物需要를 擴大시키는데 成功하였다.

더욱이 大資本에 依한 織物部門에의 投資는 生產의 多樣化를 通해서 發達段階를 높일 수 있어 國際競爭力 強化에 寄與하였다. 1978 年度에 프랑스는 世界纖維生產의 3%를 占하고 歐洲共同市場의 織物企業 數와 從業員數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織物產業은 資本支配力에 依한 그룹기업과 企業數에서 優勢한 中小企業으로 二元論의 產業構造가 형성되어 相互補完關係를 이루고 있다. 構造的二元論으로 織物產業을 發展시킨 背景을 알아보기로 한다.

2) Union des industries textiles, Statistiques générales de l'industrie textile française, 1975, Paris P5.
Insée, Rapport sur les Compte de la Nation, 1975, Paris P623.

III. 歷史的背景

時代의으로兩分해 보면

- 1) 產業革命에서 二次大戰前까지
- 2) 發展樣式의 革新이 시도되는 二次大戰以後부터 오늘날까지

[1] 產業革命에서 二次大戰前까지 織物產業은 產業革命이 가져다준 새로운 發展의in 工業技術을 첫번째로 받아들인 產業部門으로서 手工業經濟에서 資本主義經濟로 교체시키는데 主導의in 術을 例役割을 담당하였다. 產業革命이 說明하는 바와같이 프랑스의 近代織物產業의 成立은 몇가지 例外를 ³⁾ 除外하고는 英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의한 機械化에 기인한 것이다. 資本主義經濟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技術移轉의 樣相은 多樣하다. (技術情報의 宣傳, 工場訪問, 라이센스, 密輸, 產業競争, 英國의 技術者 亡命等等) 發明된 機械들이 英國原產인 理由로 英國의 織物產業과 競争을 하거나 水準을 높가하는데는 障碍要因이 되기도 하였으나 木棉工業⁴⁾과 毛織工業의 形成에 기여하여 프랑스의 資本主義經濟의 基礎를 容易하게 이루었다.

Niveau氏도 同意하고 있다. : “프랑스의 產業革命은 1815年頃이 아니고 18世紀末인 것이 確實하다.” ⁵⁾

결과적으로 1865年에는 프랑스는 英國 다음으로 世界의 2번째 織物產業國이 되었다. 그러나 英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新興工業國(예를 들면 獨逸 美國)의 도전을 받아 產業發展이 障碍를 느끼기 시작했다. 30年後인 1895年에는 4번째 國으로 떨어졌고 다음 世紀에도 停滯狀態를 轉換시키지 못하여 1937年에는 5번째 生產國(①美國, ②獨逸, ③英國, ④蘇聯)이 되고 말았다.

다음의 Graph는 產業의 停滯를 確認하고 있다.

平均工業成長率을 높가하던 織物產業의 成長率이 1920年代以後부터는 工業生產率을 따르지 못했다. 특히 1930年에는 大恐慌의 影響으로 1923年度의 水準도 達하지 못했다. 織物產業의 發展에 있어서 障害의 원인을 市場이 다른 工業國들에게 餉食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貿易政策을 전환하고 있다. 1830年부터 프랑스는 20年동안 견지하여 오던 自由貿易主義를 포기하고 保護貿易政策을採用하고 있다.

3) 예를 들면 JACQUARD는 평주 직조기를 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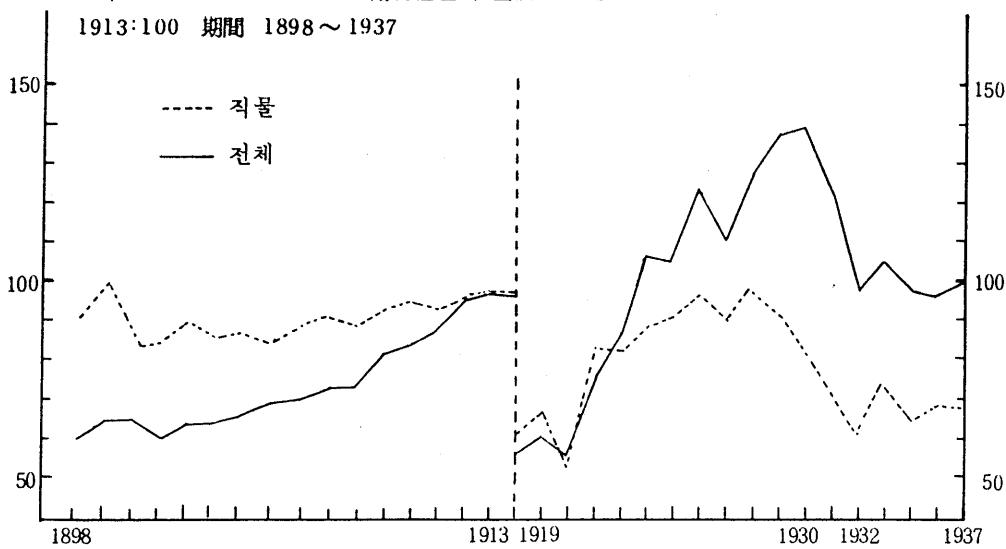
4)近代機械를 使用한 木棉工業은 第1帝政이 取扱한 保護貿易主義(Napoleon에 의한 대륙봉쇄)에 의해 括目할 發展을 이루었다.

5) Maurice Niveau, Histoire des faits économiques contemporains, Paris, P.U.F. 1970, p.47.

易主義에 依存하기 시작하였다. 1892년에는 광활한 植民地를 대상으로한 商品市場에 保護障壁을 유지하는데 注力하였다. 關稅障壁

그라프 1 :

織物生產과 全體工業生產比較



Annuaire statistique de l'Insee, 1952.

Résumé rétrospectif, p.113-114.

保護貿易主義는 다음 狀況에 의해 더욱 強化된다.

- ① 大恐慌으로 產業이 沈滯期에 들어가고 ② 美·日 等의 先進工業國과의 競爭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③ “後進國(인도, 남미국가)의 商品이 진출 따라서 프랑스 織物產業은 商品流通을 절대적으로 植民市場에 依存하고 있다. 그림표를 보면 依存度는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 특히 綿

그림표 2. 프랑스의 棉絲와 綿布의 對佛領 植民地 輸出

	면 사	면 포
	대식민지수출 전체수출 %	대식민지수출 전체수출 %
1925	7.5	52
1930	11.0	63
1938	3.6	91.4

INSEE, Annuaire Rétrospectif, de l'Insée, 1966, PARIS p.300.

布의 경우는 1938年에 거의 대부분을 植民市場에 流通시킨 정도로 보아 植民地는 唯一한 商品市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保護貿易主義의 구사는 產業發展의 障害가 市場의 협소에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어느정도 織物產業을 保護한 것은 사실이나 同產業을 위한 投資의 活潑性은 보장하지 못했다. 위의 政策이 生產組織의 再整備와는 무관하여 内部問題를 동반시 했다.

더욱이 지나친 保護로 逆效果를 초래했다. 같은 發展樣式만 반복되고 恐慌의 타개策으로 保護障壁만이 唯一한 手段으로 간주되어 市場에 대처하는 競爭力이 弱化되었다.

經濟主體인 政府와 企業들의 政策이 一方의이어서 實際적으로는 長期沈滯의 원인이 되고 있다. 企業家들도 습관적 經營態度로 一貫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면

① 經濟에 대한 國家의 機能이 唯一하여서(保護貿易主義), 多樣性을 기할 수 없다. 항구적 인 保護아래서 產業革命을 성취시킨 老衰한 產業構造를 改編하지 않아 進涉하는 資本主義 經濟에 適應하는데 否定的 요소로 作用되었다. 결과적으로는 老衰한 產業構造를 保護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企業規模는 매우 零細하고 家內的이어서 銀行에 의한 間接金融도 자주 使用되지 않았다. 生產시설도 1939年에 사용되던 것이 주로 25년도의 것인 정도로 오래 되었다. 따라서 製品의 差別化와 技術開發은 기하기 어려웠다.

② 企業가들도 慎重한 企業政策에 依存하여 經營方式이 소극적이고 扶養성이 不足하였다. 企業規模도 擴張을 기하지 않고 家內工業의 編成을 자주 볼 수 있어 CAPRONIER氏는 Schum peter式 經營者 아닌 “農民 經營者”⁶⁾라고 記述하고 있다.

그들의 經營方式은 踏襲的이어서 經驗, 直觀에 依하는 理由로 企業家의 精神이 不足하였다. 이들에 의한 織物의 價格決定와 投資의 擴大 내지 技術開發, 經營革新 等으로 費用 下落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市場의 機能에만 따랐다. 2個의 經濟主體(政府, 企業)에 依한 “市場守護主義” 一邊倒의 開發方式은 反復될 수 없었다.

[2] (發展樣式의 革新이 시도된 二次大戰後부터 오늘까지) 二次大戰의 廢墟의 影響으로 프랑스 織物產業의 發達水準은 19 세기末과 比較될 정도로 後退하였다.

CAPRONIER氏는 木棉工業의 例로서 描寫하고 있다. 製絲를 위한 設備는 一次大戰 以前의 것이었고 織組를 위해서는 58%였다. 단순히 5~6%정도가 1935年以後이었다.⁷⁾ 產業構造가 中小企業 中心의 形態인 것은 여전하였다. 또 다른 產業部門과의 連結性이 不足한

6) F. Capronier, la Crise de l'industrie Cotonnière française, Ed Génin, Paris, 1956, P116.

7) F. Capronier op. cité P210.

“個別生產方法”인 까닭에 낮은 生產性과 높은 原價로 競爭力은 매우 弱한 狀態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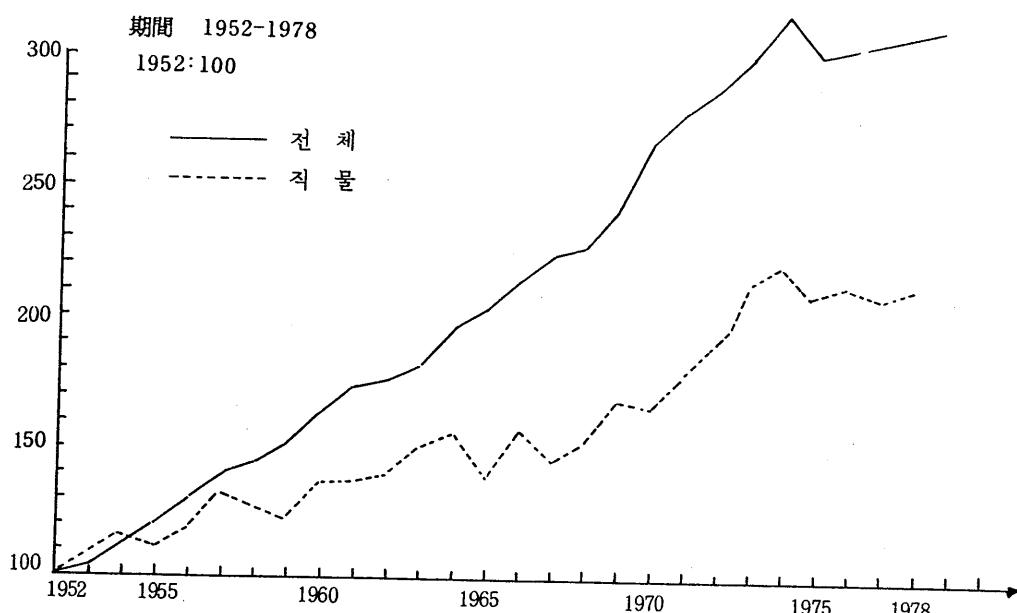
위의 프랑스 織物產業의 構造的 矛盾을 다음 狀況이 證明해 준다. 戰後復舊경기와 韓國戰 경기로 인한 產業의 성장도 短期間에 머물렀다. 1951 ~ 1954 年에는 다시 프랑스 織物產業은 化學 纖維 部門만 除外하고는 심한 恐慌을 맞이하였다. 특히 木棉工業의 경우에는 제일 심하였다. 다행으로 恐慌은 프랑스 織物產業에게 長期沈滯를 確認시킨 것이 아니고 發展樣相을 革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당시 單純化의 태도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發展을 2 가지 면에서 轉換시켰다.

① 織物產業을 위한 交易關係를 多樣化시켰으며

② 生產組織을 多樣化 시키고 同時に 革新 시켰다.

결과적으로 恐慌을 극복하는 것은 勿論 產業의 지속적 성장을 다음 Graph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허용하였다.

그라프 2 : 織物生產과 全體工業生產의 比較



Annuaire de l' Insée, op. cité 1966, 1979 Paris.

대체적으로 1973 年까지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產業의 정체가 지속되지 않은 要因은 產業의 發達樣相의 革新에서 찾을 수 있다.

① 植民市場에 依存했던 交易關係의 多樣化

② 生產組織의 整備와 現代化

③ 生産의 多様化

1) 交易關係의 多樣化

1950 年 중반부터는 프랑스의 植民地 獨立⁸⁾이 진전되어, 프랑스의 織物產業은 商品市場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9 年에 織物生產의 69 %를 자신의 植民地에 流通시킬 수 있었으나 1966 年에는 17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國家의 機能에 依存하여 掌握하고 있던 市場喪失을 대의 交易關係 多樣化로서 극복하였다. 即 經濟的인 힘으로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였다.

1966 年에 全體 織物生產의 50 %를 歐洲共同市場에 供給하였다.

多樣化된 海外市場은 變化하는 市場에의 適應을 容易하게 하였고 國際競爭力を 強化시켰다. 시도된 多樣化는 生產組織의 革新과 生產의 多樣化의 脊 받침으로 프랑스의 새로운 織物產業의 發展을 成立시킨 要素가 된다.

2) 生產組織의 整備와 現代化

織物產業을 위한 生產組織의 革新은 大資本에 依해 이루어졌다. 即, 1961 年부터 1973 年까지 織物企業數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6,800에서 3,900으로 줄어든 企業의 대부분은 中小企業들이었다. 또 個人企業의 감소가 현저했다.: 1961에서 1969 年까지 個人企業은 46 % 감소하였으나 法人企業의 감소는 15 %에 불과하다.”⁹⁾

結果的으로 大企業은 1961 年에 1,000 名以上을 雇用한 企業의 從業員數가 工業全體의 13 %를 占하였으나 1970 年에는 16 %¹⁰⁾에 이르는 정도로 發展할 수 있었다.

中小企業의 没落의 原因은 勿論 零細性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直接的인 理由는 大企業을 中心으로 한 系列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系列化的 대상이 된 中小企業들은 容易하게 没落되지 않았다.¹¹⁾

織物產業의 中心을 이루면서 同產業을 支配하는 그룹기업은 A. Willot Dollfus-Mieg, Lainiere de Roubaix, Phone-Poulenc이다.

이들은 1950 年代의 프랑스 織物產業의 樣相을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룹기업들은 무거운, 또 長期投資를 감당할 수 있어 生產組織의 現代化가 可能하고 또 國內海外市場에서의 競爭력을 確保하고 등한시하던 技術開發과 經營革新에 關心을 두어 市場의 變化에 대비할 수 있었다.

8) 1956 年에 인도차이나, 모로코独立, 1957 年에 튜니지아, 1958 年에는 마다가스카르과 多數의 아프리카國家들 1962 年에는 알제리가 獨立

9) INSEE, La Mutation industrielle de la France, 1975, P135.

10) INSEE, Ibid, P24.

11) INSEE, Ibid P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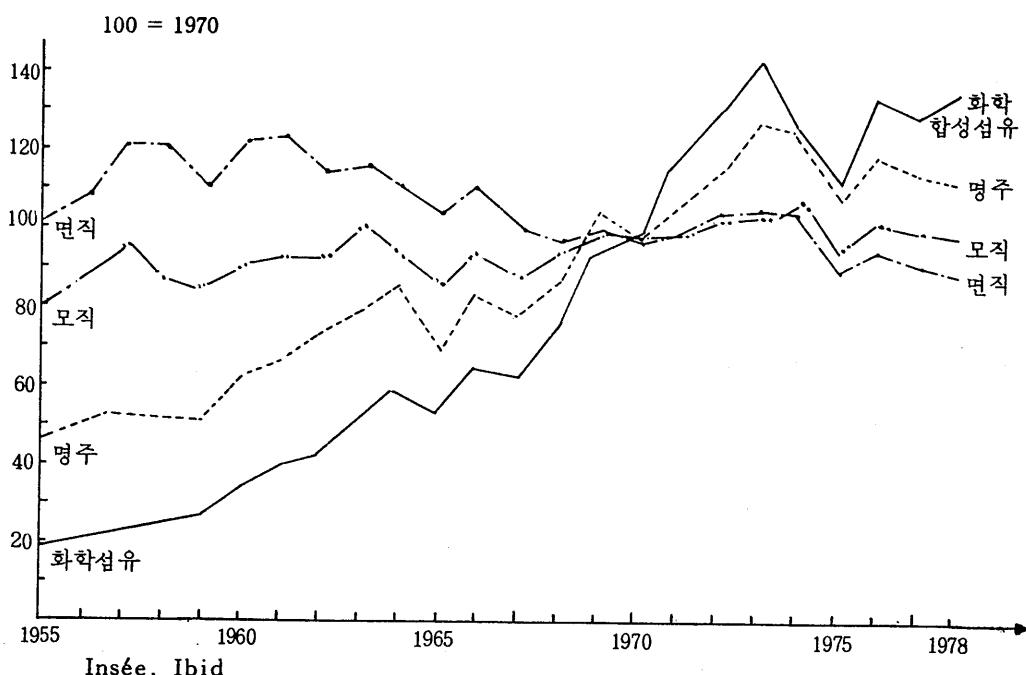
그룹기업의 主導的인 活動이 競爭에서 脱落되지 않은 中小企業의 活動에 依해 보완됨으로써 企業構成의 多樣性은 保障되었다. 새로이 편성된 企業들은 새로운 分野를 投資하여 2 가지 方法으로 生産의 面貌를 바꾸었다.

3) 生産의 多樣化와 高度化

化學纖維의 出現은 織物生產의 刮目할만한 增加를 가져와 새로운 프랑스 織物產業의 發展을 確認시켜 주었다. 이와같은 것들은 다음 그래프에서 把握할 수 있다.

그라프 3 :

生産의 增加 (1955 ~ 1978)



Insée, Ibid.

2次大戰前에는 化學纖維의 生產은 人造絹 정도여서 매우 微弱하였으나 戰後 30年동안 (1945~1975) 化學纖維 生產은 指數的 리듬으로 增加하였다. 1923年에 織物產業은 製絲를 위해 化學纖維 消費率이 9.2% (80%는 人造絹絲)에 불과하였으나, 1974年에는 27.3% (72%는 合成纖維)로 向上되었다.

化學纖維가 積大으로 大量生產이 可能해짐에 따라 織物產業內에는 새로운 部門이 形成되었다. 織物產業部門의 擴大가 더욱 促進되어 化學纖維 生產은 天然纖維에 의한 代替效果도 許容하고 또 兩纖維의 結合인 合成纖維는 新製品 開發과 같은 의미를 갖게 하였다.

이로인한 產業聯關效果를 두가지 側面에서 살펴보자.

우선 織物產業內의 側面에서 보면 合成纖維에는 다른 織物部門을 促進시키고 있다.¹²⁾ 그레프 3에서도 4個의 織物生產이 同時に 增加하는 事實이 把握된다.

다음으로 織物產業外의 側面에서 보면 전히 다른 部門인 化學工業과의 關係가 頻繁하여짐과 같이 다른 產業을 發達하게 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다.¹³⁾

위의 狀況은 프랑스 織物產業의 停滯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生產力 向上과 生產量 增加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지속적으로 新製品과 獨創性 있는 製品의 開發이 必要하였다. 따라서 生產이 多樣化되고 동시에 高度化되어 生產樣式을 轉換하는 것은 勿論 需要開發도 可能하여 消費의 世界도 바꾸어 놓았다.

실현된 生산의 高度化와 多樣化는 交易聯關과 企業構造의 多樣化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織物產業 發展을 進步 시킬 수 있었고 資本蓄積도 짜임새 있게 빠른 速度로 進展되었다. 이와같이 大戰前과는 달리 恐慌을 피하지 않고 克服할 수 있었던 織物產業이 다시 恐慌을 맞게 된다. 어떻게 對處하는지 마지막 章에서 보기로 한다.

끝으로 프랑스 織物產業의 새로운 發展樣式을 形成시켰던 生產資本의 多樣化와 高度化의 理論的 背景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IV. 生產資本 組織化의 理論的 分析

組織化(多樣化, 高度化)의 目的是 資本의 動態性의 極大化에 있다. 먼저 概念을 알아보고 프랑스 織物產業에 概念을 適用해 보기로 한다.

(1) 概念의 定立

資本의 動態性은 生產組織의 形成에 源泉이 되는 企業活動을 通해서 證明된다. 相互聯關의 으로 動態的 狀況에 適切한 概念은 變化된 새로운 生產組織을 診斷하는 過程에서 定立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資本의 動態性은 資本構成의 高度化와 巨大化가 擴大反復되는 傾向으로 集約될 수 있다. 두가지 傾向을 促進시킨 要因에 關心을 가져봄으로서 方法論을 選擇하여본다. 即 傳統的인 分析方法인 企業내지 產業區間등의 制度的 區分에 重點을 두었던 分析에서 벗어나 資本活動과 資本機能을 中心으로 分析을 展開하는 方式이다. 勿論 資本活動과 資本機能이 傳統的인 兩要素(企業 產業區間)와 무관하여졌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分析方法의 轉換을 通해 生產

12) 合成纖維로 인해 양단자 生產이 持續的으로 增加한다.

13) 生產된 織物이 中間財로 使用되는 경우도 包含된다.

活動의 發展的이며 새로운 面을 發見하려는 方式이다. 따라서 生產을 財貨와 效用의 流通에 초점을 둠으로써, Branch라는 生產單位의 概念을 說明하게 된다. Branch란 同一한 品目의 生產을 위해 編成된 生產單位라고 定義할 수 있다. 即 각각 다른 產業部門에 속한 生產物들이 中間財로 消費되면서 같은 Branch에 속할 수 있다. 또 일정한 生產品에 關係된 理由로 企業全體가 Branch에 包容될 수 있고, 혹은一部分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產業聯關表에 의해서 實質的 把握이 可能하다.

Branch에 대한 概念은 다음 學者에 의해서 더욱 뒷받침 되고 있다. 먼저 R. Borrely의 見解를 보면 “Branch란 同一한 品目을 生產하기 위한 目的으로 比較的 連結性이 있는 生產過程에 參加하는 生產者의 그룹이다.”¹⁴⁾ 利潤을 確保하기 위한 生產者들의 集團化 現象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見解에 의하면 Branch形成의 目的是 明示되나 概念의 具體性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다음 세학자 CL.Gillard, G. Deplace, W. Andreff.에 의해 概念이 明確化된다. “資本主義의 再生產이라는 태두리內에서 動態的 發展을 產業區間을 再編成한 生產單位로써 利潤의 主軸機能化를 기하고 있다.”¹⁵⁾

위의 學者들의 見解와 그들의 異見調整으로 두가지 Branch機能을 把握할 수 있다.

①目標위주로한 生產組織의 集中

②資本蓄積을 圓滑히 하기 위한 主軸機能 定義된 Branch도 “個人的 價值”를 “社會的 價值”로 轉換시키는 領域인만큼 發明된 것도 아니고 원래 存在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우 曖昧했던 概念의 定立이 必要하게 되는 것은 Branch의 機能의 革新에 의한 것이다. 말하자면, 分業의 擴大, 深化와 技術과 經營의 進步는 發展의 形態를 過去와는 比較할 수 없이 動態化시켰고, 또 加速化시켰기 때문이다. 새로운 方式的 發展은 Branch에게 傳統機能을 구사하는 것을 許容치 않고 資本蓄積을 促進시키는 主軸機能만을 要求하게 되었다.

Branch의 主軸機能에 따라 生產의 組織化를 實現시켰다.

①同一產業內에서 競爭으로 分散되었던 價值實現方式을 Branch를 通해서 集中的 價值實現方式으로 轉換했다.

② 產業相互間의 競爭의 效果로 因한 利潤平等化에만 依存하여 原價를 節減할 수 있었으나, Branch에 의해 原料工程을 掌握하여 原價를 統制할 수 있었다.

14) R. Borrely, *Disparités sectorielles des taux de profit*,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4, P62.

15) L. Gillard Avec 2 Auteur, *Régulation du capital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8, P75-76.

위의組織의 잇점으로兩競爭(産業內, 産業相互間)에서 특히過當競爭에서 主導權掌握에 치중한目的으로編成되었던 産業構造를 集中的인 競争力を 위해 再編成하였다. Branch가 重要 한 投資領域으로 確認된 것은 Branch 자체가 專門化되기 때문이다.

"生産部門들을 그룹화시키고 專門化시켜 生産力 增加와 高度化를 뒷받침한다." ¹⁶⁾라고 Neme教授는 보고 있다. 專門化를 追加시키는 Branch內的 專門化(Intra Branch Specialization)가 다음과 같이 進展된다.

① 生産工程들이 連結됨으로써 專門性이 形成된다.

② 明確한 目的에 生産意慾을 集中시켜 技術情報률 圓滑히 한다.

③ 集中된 競争력은 激甚하고 複雜하던 國際市場에서 獨創性있는 競争力 開發에 기여한다.

새로운 專門化의 形成은 生産資本의 組織化를 完成하면 産業全般을 위해서는 發展樣式의 革新을 決定지웠다. 그러나, 資本力에 의한 뒷받침이 절대시 되었다. 豐富한 資本力과 資本集中力を 허용하는 企業의 그룹화는 加速되었다. 이들 企業들은 다른 企業에서 買入, 혹은 下請(예를 들면 染色, 실종기등)하던 方式을 反復하지 않고, 자신의 企業組織에 包含시켰다.

企業의 그룹화는 獨立된 企業들을 没落시키면서 새로운 技術의 導入과 革新的인 經營으로 新製品을 開發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Branch들을 追加시키고 Branch內의 專門化를 擴大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生産資本의 組織化를 프랑스織物生產을 通해서 보기로 한다.

(2) 織物産業에 대한 Branch 概念 適用

最終生産品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표와 같이 4段階의 工程이 必要하다.

그림표 3.

프랑스 織物産業의 單純生産工程

基 本 段 階	纖維購入, 纖維生產, 纖維고르기 (例: 면고르기)
가 공 1 단 계	製絲 (1)
가 공 2 단 계	織組 (1)
최 종 단 계	染色 (2) 마무리

INSEE, LA, Mutation Industrielle, de la France, Paris 1975, p.31~32

(1) 最終段階를 거치지 않고 판매 可能

(2) 染色은 生産工程의 每段階에서 할 수도 있다.

16) C. Neme, Economie et finance internationales, Dunod, Paris, 1982,
P158.

첫번째 段階에서 化學내지 天然纖維를 確保하고 2개의 加工工程을 거쳐서 4번째 段階에서 生產이 끝난다. 위와같이 4個의 工程의 連續을 textile chain이라고 한다. 위의 工程은 한 品目의 纖維生產을 위한 專門化를 허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產業部門으로 區分되어 있다. (예를 들면, 棉織工業, 生織工業, 組織工業, 쥐트工業等等)

每 textile chain의 固有性이 유지되어 하나의 單位로 孤立되어 있는 듯하여 “찬막이式의 生產組織”을 形成한다. “찬막이式의 方式은 化學纖維가 織物部分의 一部門을 차지함으로써 補助의 位置로 물러난다.”¹⁷⁾

化學纖維生產 자체가 重化學工業의 影響을 甚하게 받는 것같이 다른 產業部門과의 連結性이 緊密하다. 連結은 다음의 理由로 더욱 促進된다. 即, 化學纖維가 合成纖維를 形成시키고, 同纖維는 必須不可缺한 衣類需要가 됨은 textile chain間의 統合을 자주 成立시킨다.

위의 事實에 대해 Bohan 氏도 同意하고 있다. “textile chain은 原則的으로 獨立的으로는 存在할 수 없다. 다만 基本段階에서는 孤立될 수 있으나 다음 段階부터는 消費者的 購買形態에 適應하기 위하여 textile chain間의 相互連結은 切實하다.”¹⁸⁾

相互連結이란 主轉機能에 따라 textile chain들의 補完的 連結이다. 물론 한 段階씩만 把握할 때는 以前과 같이 “찬막이式”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全體的인 面에서 보면 主轉機能을 充足시켜야 하는 每 textil chain의 役割이 있는 것이다. 役割은 原料購入過程과 生產過程에서 發展의 專門化를 기하고 있다.

目的을 實現시키는 生產工程을 보기로 한다. : 다음 그림표 4를 통해서 본다.

실물기 工程에서 chain間의 統合이 일어나고 다시 分離되었다가 最終段階에서 統合된다.

單純工程(그림표 3)과 比較하여 보면 生產組織이 巨大化 내지 複雜化되는 事實을 알 수 있다.

比較를 통해서 生產資本의 組織化가 프랑스 織物產業에서 이루어짐을 實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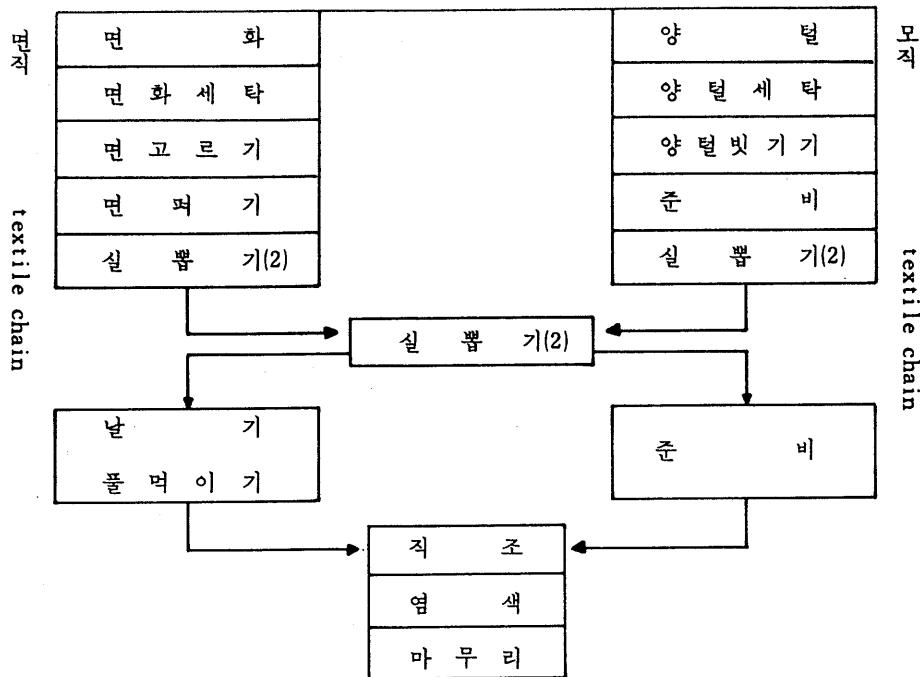
擴大, 그리고 高度化된 生產經濟의 概念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로 產業部門에 依存해 왔던 分析方法을 Branch에 의한 分析方法을 追加시켜 주었다. 또한 資本動態化를 實現하는 理論的 뒷받침도 되고, 恐慌을 단순하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打開하려는 道具가 되기도 했다. 다음 章에서 限界點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7) “찬막이式”이라 하더라도 다른 產業과의 關係는 活潑치 않지만 必要時 되었다. 最終段階에 이르기 위해서는 中間財의 確保와 生產機具가 要求되어 化學工業내지 機械工業의 도움에 依存하였다. 또 製品의 販賣를 위해 다른 產業部門과의 来去가 施行되었다. 記述된 織物產業의 다른 產業部門과의 關係가 同一한 產業部門의 内部結束과 比較可能할 정도면 “찬막이式”이 崩壞되고 textile chain간에 連結이 되면서 Branch 形成의 基礎를 이루는 것이다.

18) Philippe de Bohan (directeur da C.T.O.E.), La filière textile, Annales des Mines, janvier 1980, p.3.

그림표 4.

프랑스 織物產業의 連結生產工程



Dossier textile L'innovation pour tout changer Usine nouvelle No.39 septembre 1979,
p.102.

- (1) 棉織工業과 毛織工業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하나의 機械로 여러가지 纖維를 뽑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른 機械를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V. 背景變化에 따른 恐慌

織物產業構造의 多樣化는 同產業 發展의 革新에 寄與하였으나 비슷한 現象(多樣化)이 生產過程의 反對面 消費過程에서 나타나, 逆으로 發展을 저해하는 不正的 要素로 作用하여 恐慌의 前奏曲이 되고 있다. 이를 3段階로 보면

- ① 消費의 多樣化에 의한 織物市場이 相對的으로 縮小되고
- ② 輸入에 의한 市場의 窶食으로 더욱 縮小되었으며
- ③ 結果的으로 恐慌이 일어났다.

(1) 織物市場의 相對的 縮小

“生産體制와 消費體制”가 調和있게 運營되어야만 再生産이 圓滑해질 수 있으나 “消費體制”的 變化로 經濟的 脫臼現象이 두가지 側面에서 일어난다.

- ① “全體需要面”에서 보면 消費의 多樣化로 織物需要의 相對的 減小를 招來했다.
- ② 織物市場의 內部에서 보면 織物需要의 多樣化는 國民經濟 外部로부터의 商品流入을 容易하게 하여 結果的으로 市場의 支配權이 흔들리게 된다.

長期觀點에서 보면, 織物生產의 趨勢에 順應하는 式으로 소비선호가 劇一的일 수는 없는 것이다. 30年前부터 向上되는 生活水準은 大衆消費社會의 成立을 證明하고 있다. 열핏보기에는 새로운 社會가 높은 生活水準으로 織物需要를 擴大, 多樣化시킬 것 같다. 그러나, 生活水準의 向上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支出을 多樣化시키고 있다. 織物需要의 繼續적 開發의 可能性은 抑制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표 5. 支出의 比重의 變化 (1950 ~ 1974)¹⁹⁾

	1950	1955	1960	1969	1970	1974
織 物	15.5	13.2	12.2	11.7	10.6	8.7
食 品	44.8	39.6	36.8	33.0	28.9	25.9
住 居	11.9	14.3	16.4	17.3	19.8	22.2
衛 生	7.0	7.9	9.9	12.0	12.1	13.8
通 信, 交 通	5.9	7.5	7.8	8.7	10.3	10.6
文 化, 餘 暇	6.5	6.8	7.0	7.0	9.2	8.6
其 他	9.4	10.0	9.9	10.3	9.2	10.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Insée, L'annuaire statistique de France, Paris 1975, p.120 ~ p.125.

衣類需要의 比重은 繼續的으로 下落하고 있고 支出의 形態가 均衡이 잡혀가고 있다.

1960年代 中半에는 衣類支出이 充足段階에 이르러서 絶對重要性은喪失되어 1969年에는 支出順位 4位에 불과했고, 1974年에는 順位가 거의 마지막이 되면서 比重이 9%未滿으로 떨어졌다.

比重의 下落에도 불구하고 消費者들이 織物絕對消費量은 增加시킬 수 있다는前提는 있을 수

19) 經常F(프랑)으로 算出하였음

있으나, 다른 支出部門에 대한 相對的 重要性의 弱化는 否認할 수 없다.

위의 事實로 프랑스 織物產業은 國內市場과 先進織物市場의 유지가 不安定하게 된다. 더욱이 比重의 下落이 中止하지 않는 狀況은 投資家에게 意慾을 奪失시키고 있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發展樣式의 革新에 의해 오랜 停滯에서 벗어났던 프랑스 織物產業의 發展이 저지되고 있는 것이다. 發展의 어려움은 國民經濟에서 오지 않은 外部要素로 인해 明白해진다.

(2) 織物輸入에 依한 市場裝飾

後進工業化의 重點的인 戰略인 海外市場의 開拓이 先進織物市場에서 成功할 수 있었던 理由는 先進經濟의 織物需要 自體가 多樣化한데도 기인한다.

15年前부터는 織物需要가 必須的 必要에만 集中되었던 狀況이 弱化되면서 다른 需要와 補完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製品의 使用度와 耐久性이 形成시켜준 需要의 形態(必須需要 中心)가 向上된 生活水準으로 流行내지 娛樂(예를 들면 流行에 따른 衣服, 스포츠, 레저 等)을 위한 補充需要²⁰⁾가 增加하고 重要시된다.

”補充需要“는 織物需要를 2元의 으로 階層화시킨다.

먼저, ”補充需要“는 高級織物製品으로 充足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必須需要“는 傳統方式을 維持하는데 한가지 變化된 現象이 나타난다. 2元化現象 以後에는, 同需要의 消費者들은 후자의 形態를 선호한 理由를 低廉한 價格에서 찾고 있다. 위의 狀況이 “後進”織物製品으로 하여금 市場을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工業化를 시도한 國家들은 資本은 부족하나, 低廉한 勞動은 豐富하여, 값싼 製品을 다음과 같이 供給할 수 있었다.

그림표 5.

價格의 比較²²⁾ (1977)

	홍콩 產 샤츠	프랑스 產 샤츠
공장가	10 F	25 F
운임	1 F	
관세	2 F	
수입차이율	4 F	
소매차이율	18 F	25 F
총합	35 F	50 F

Revue "50 Millions de consommateurs" No.82 Octobre 1977, p.26.

20) 大衆消費 社會의 形成은 織物消費構造를 修正되고 있다.

“消費의 새로운 構造는 人間의 生活環境의 影響을 점점 받고 있다.”²¹⁾

消費에 心理, 社會要素가 介入되어 補充需要의 概念이 確認되고 必須需要와 구분된다.

새로운 消費는 製品 差別化를 促進시킨다.

21) Attali et Guillaume, L'antiéconomique P.U.F., 1974, P130.

22) 중간정도의 製品을 1977年度의 Paris 중심가의 市場價格에 따라서 比較하였음.

여러가지 費用을 支拂하고도 製品의 價格이 30 %정도 低廉하다.

싼값으로 인한 價格競爭으로 先進市場을 掌握한 勞動集約型의 “後進” 織物產業은 內需市場의不足의 短點을 克服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戰略은 다음 몇나라에 의해서 成功될수 있었다.

그림표 6.

後進製品의 對 16 個 先進國 輸出을 차지한 比率

국 가	직 물 %	의 복 %
한 국	16.0	23.6
인 도	12.5	4.2
홍 콩	10.6	36.4
파 키 스 탄	6.6	0.4
대 만	4.4	12.7
싱 가 풀	3.0	2.3
알 제 텐	0.8	1.5
기 타	46.1	18.5
후진국에 의한 전체수출	100.00	100.00

Comitétextile, Bulletin du Comité textile, janvier 1979, p.24.

3 개 大織物輸出國(한국, 인도, 홍콩)이 “後進” 國의 전체에 40 %를 차지하고 있다. 衣服의 경우는 더욱 深刻하여, 한국, 홍콩, 대만이 70 %를 넘고 있다.

이들 新興工業國들이 先進織物市場을 鑿食하는데 成功함으로, 輸出에 의한 主軸機能으로 가지게 되었다: 主軸機能으로 工業化를 용이하게 體系化시켰고, 또 強化시킬수 있었다. 織物의 大量輸出은 同産業을 先導産業으로 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表7을 통해서 證明하여 보면, 工業化의 初期段階인 1960 年에는 양쪽의 成長率에 差異가 없었으나, 다음 狀況(1965～1976)으로 變化되고 있다.

“後進織物工業의 成長率이 先進國의 速度를凌駕하기 시작했다. 衣服工業의 경우는 더욱 刮目할만하여, 2 가지 結果를 낳고 있다.

먼저, 製造業에게 높은 成長率(7%)를 許容하고, 동시에 “後進經濟構造를 變化시키고 있다. 높은 成長率에 따라 世界織物의 貿易構造를 變形시키고 있다.

“世界織物貿易에서 後進國이 차지하는 比率은 20년동안(1955～1976) 15%～28%로 向上

그림표 7. 先進國과 “後進”工業國의 年平均 成長率 比較²³⁾

	1960 - 1965(%)	1965 - 1976(%)
직물공업		
후진	4.7	4.2
선진 ²²⁾	4.1	2.9
의복공업		
후진	6.9	6.8
선진 ²²⁾	3.3	1.9
제조업		
후진	6.8	7.0
선진 ²²⁾	6.4	4.5

O.N.U., La Croissance de l'industrie Mondiale, Edition de 1970, p.529, édition 1977, p.681-682

되었다.”²⁴⁾

따라서, 織物을 위한 國際分業의 새로운 形態는 나타날수 있었다.

그림표 8. “後進國”의 對 16 個 先進國에 대한 輸出構造

%	原 料	實	천	完製品	총 합
1964	72	2	13	13	100
1974	33	4	17	46	100

C.E.P.I.I., Les économies industrialisées face A la Concurrence de tiers-Monde:I
Cas de la filière textile, paris 1979. p.17.

10年동안 原料의 比重이 半以下로 減少되고, 完製品이 전체 輸出에 거의 半을 차지하고 있다.
輸出構造가 완전하게 바뀌고 있다.

23) 先進經濟는 資本主義의 先進國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4) 衣服工業은 가죽과 신발을 包含시킨다.

25) Comité textile, Ibid, P2.

다시 말해서, 輸出에 의한 主軸機能과 織物產業에 依存한 先導機能에 따른 不均衡成長의 결과로 1次產品과 工業製品의 交換으로 단순하게 商品市場으로 간주되었던 後進地域에서 織物競爭國이 나타났다.

國際分業의 形態가 修正되는 事實이 닥쳐오는 恐慌을 발생시킨 理由는 된다. 그러나, 恐慌의 影響이 심각 했던 것은 프랑스 織物產業의 内부적 脆弱點이 다음과 같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先進經濟(獨逸, 日本, 스위스 등)도 위협(후진직물의 진출)은 받았으나, 企業의 系列化가 견고하여 競爭에서 강하였고, 또 高級織物製品의 輸出, 특히 프란트 輸出로 貿易赤字를 매울 수 있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組織의 上部樣造가 弱하였다: 産業發展을 주도할 수 있는 資本財의 生產이 부족하였다.

系列化가 굳어지지 않아 競爭에서 不利하였고, 프란트輸出의 不振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새로운 狀況이 進展됨에 따라 프랑스 織物生產組織의 문제점은 더욱 深刻해지고 또 消費體制의 運營이 生產體制에의 不順應으로 造成된 市場不安은 새로운 恐慌을 예고하고 있었다.

恐慌의 到來를 確定化시키고, 앞당긴 것은 1973年の 石油波動 때문이었다. 다음에는 1970年代의 恐慌에 싸인 프랑스 織物產業을 알아 보기로 한다.

(3) 恐慌

戰後 30年동안 持續되었던 經濟成長은 1974年に 갑자기 停止되면서, 그 時點부터 沈滯期에 들어가고 있다.

“1973年과 比較하여, 1975年에는 工業生産은 6% 減少하였고, 雇用面에서도 4% 減少하였다.”²⁵⁾

恐慌이 國民經濟 전반에 波及된 것은 물론이나, 우리의 主題인 織物產業의 경우는 甚하였다.

그림표 9.

消費財 產業을 위한 年平均 成長率 (%)

	1970~1973	1973~1977	차 이
직 물	4.9	-1.4	-6.3
약 품	9.2	4.5	-4.7
가 죽, 신 발	3.8	-0.8	-4.6
목 재, 가 구	8.7	2.7	-6.0
인 쇄, 출 판	2.7	2.0	0.7
위 산업들의 총 합	6.8	1.8	-5.0

michel Dolle, La Concurrence, Paris 1978, tableau 9.

26) O.N.U.' La Croissance industrielle Mondiale, 1977, P681.

比較하여 보면, 織物產業의 成長率 6%나 下落되는 狀況이 證明하는 바와같이 5개 產業중에 서는 織物生產이 가장 萎縮을 받고 있다. 1973~1977年의 期間에는 마이너스 成長도 記錄하고 있다.

위의 狀況은 단순한 生產의 增減이 아니라, 開發樣式의 계속적 革新을 目的으로 시도된 資本蓄積方式의 限界에 다다랐다는데 意味가 있어 恐慌으로 보려한다.

즉 生產力의 向上과 大衆消費의 開發로 大量生產이 可能하였다.

生產과 消費의 均衡의 成長은 生產組織의 擴大를 圓滑히 하며, 동시에 資本의 循環에 順應하여 勞動의 擴大再生產을 進展시키고, 결과적으로 動態發展論을 成立시켰다. 均衡의 發展을 테두리로 하여 實現된 高度成長은 새로운 方式의 資本蓄積을 계속 시킬 수 있었다.

試圖되는 資本蓄積이 發展을 革新시키고, 恐慌을 革新的 發展의 機會로 할 수 있는 長點은 있으나 大量生產을 계속적으로 擴大시킬 수 있느냐 하는 狀況이 問題이다.

즉, 目的을 實현하기 위해서는 恒久的인 技術開發과 經營革新이 必要함으로써 豐富한 資本과 資本集中力이 뒷받침되는 것이 前提條件이 된다.

따라서, 市場機能에만 依存한 自由放任方式을 止揚하고, 다른 經濟主體의 機能을 追加시켰다. 國家(經濟에 대한 개입)와 獨占企業의 活動으로 위의 條件을 充足시킬 수 있었다. 資本力의 뒷받침을 받아 生產資本의 組織化는 織物產業에게 새로운 方式으로 恐慌을 解決시켰다. 根本問題가 解決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기간의 發展을 위한 道具에 불과하였다.

지금까지 分析하여 본 限界點들은 恐慌을 對處하는 過程에서 다시 檢討하게 된다.

VI. 恐慌에 대한 打開試圖

恐慌이 가져다준 資本蓄積의 어려움의 심화와 產業活動의 不安全性을 條件으로 하였지만, 革新的인 發展樣式²⁶⁾을 固着化시키는 過程에서 위의 條件에서 벗어나려는 方式으로 恐慌에 對處하고 있다.

다음 3 가지 점에서 恐慌에 對處하는 方式을 보기로 한다.

먼저, 市場이 蠶食되는 狀況을 弱化시키고 다음으로는, 그룹企業을 中心으로 投資를 再編成하여, 恐慌期의 短縮을 試圖하고 있다. 끝으로 勞動施行을 進步시켜서, 動態發展論을 固守하여 恐慌期의 短縮을 피하고 있다.

27) 2次大戰後에 生產資本의 巨大化와 高度化로 低成長의 狀態에서 벗어나게 했던 織物產業의 發展樣式

(1) 市場의 守護

價格競爭에 依存한 “後進”工業製品에 의해 飽食되어 가는 織物市場을 지키고 또 夢還하기 위한 目的으로 經濟外的 機能을 使用한다.

먼저, 中요한 經濟主體인 企業은 就用을 解決하려는 理由로 保護障壁의 強化를 주장함으로써, 勞動組合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다시, 貿易赤字를 改善한다는 점에 國家의 機能을 작용시켰고 또, 加入되어 있는 歐洲共同市場 과의 統一된 保護貿易主義를 採擇할 수 있었다.²⁷⁾

形成된 經濟外的 機能으로, 1962年 이래 시행되고 있던 “綿織貿易의 協定”을 바탕으로 quota 制를 強化하였다.

“1974年 4月1日부터 4年的 기간동안 織物輸入을 規制하는 法令을 發表하였다.”²⁸⁾

歐洲共同市場을 單一市場으로 보고 每製品을 위한 輸入量을 加入된 各國의 消費量에 맞추어 割當하였다. 輸入規制는 自由로운 織物貿易의 發展을 저지하고 있다.

특히, 地中海 연안 國家들은 (모로코, 투니지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직은 規制 對象에서 除外시킨 점은 동남아 國家, 남미, 동구로 부터의 價格競爭에 依存한 織物輸入의 增加를 저지하려는 意圖를 證明하고 있다.

1977年에 quota 制를 다시 延長하면서, 體系化시켰다. 垂直的인 quota 制를 適用하였다. 먼저, 輸入品을 價格競爭의 影響을 받은 정도에 따라 5가지로 區分하였다.

例를 들면, 첫번째 그룹에는 綿絲, 綿布, 合成纖維, 샤츠, 스웨터, 등이다.

歐共市는 價格이 싼 製品에 대해서 嚴格한 割當制를 適用하였다. 이들 製品의 輸入은 歐共市의 消費에 比例하여 增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종전에 價格競爭을 시도하는 當事國과 協議하여 정하면 輸入上限線을 歐洲共同市場과 各國의 計劃에 따라 一方的으로 정할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quota 制의 實施結果는 歐共市의 國家들은 全般的으로 滿足하였고, 프랑스를 위해서도 같은 狀況이었다.

“1978年에 프랑스에서는 5개로 그룹된 商品의 輸入이 11.7% 增加하였고 歐共市와 去來가 많은 地中海 沿岸 國家로 부터 輸入의 18% 增加 되었지만 quota 制의 影響을 받은 國家로 부터의 輸入은 6.1%에 불과하였다.”²⁹⁾

28) 프랑스는, 織物產業의 狀況이 惡化된 關係로, “1977年에 있는 구공시의 quota 制의 再調整時에 quota 制 拡大를 強力하게 主張하고 있다.”²⁸⁾

獨逸과 덴마크는 保護障壁의 弱化의 立場을 취하고 프랑스와 論爭을 벌이고 있다.

29) U.I.T' Brochure Pour un troisième Accord Multifibres, Mars, 1980,
P3.

30) U.I.T.' Ibid.

西歐國家들에 의한 保護貿易主義의 成功이 確認되고 있다.

“後進”工業製品의 西歐進出이 줄어들자, “1981年 4月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後進”工業國會議에서 貿易의 自由를 主張하고 있다.”³⁰⁾

經濟外的 機能에 의한 市場確保는 經濟的 機能에 의해 公告히 된다. 그룹企業들이 流通過程에 도 中心을 두는 方式으로 組織을 整備하고, 戰略을 變化하는 市場의 狀況에 맞추어 能動化 하였다.

Rhone-Poulenc은 “1975年에 生產工程을 비슷한 活動에 따라 8 가지로 區分하였다.”³¹⁾ (지금은 6 가지로 編成되었음) 區分된 每단위는 生產에 대한 責任을 맡고 동시에 市場의 狀況에 맞추어 生產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La Lanière은 經營을 分權化하여, 市場의 變化에 容易하게 對處하게 하였다. 目的是, 生產보다는 販賣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있다.

Agache-Willot도 거의 같은 方式을 擇하였다. 끝으로 Dolfus Mieg도 利潤센타를 세워 市場開拓에 대한 責任을 맡겼다. 이들 그룹企業은 大量購買와 大量販賣를 통하여 流通過程을 掌握하고 한편으로는 商業政策과 마케팅을 能動化시키고 또, 다른편으로는, 市場에 맞추어 生產의 層을 擴張시키고 流行과도 連結을 시켰다.³²⁾

兩面的 活動으로, 다시 市場이 鑑食됨을豫防하는 市場의 支配權을 確認하고 있는 것이다. 守護된 市場은 그룹企業이 恐慌을 積極的으로 打開하는데 基礎를 形成하여 준다.

(2) 產業區間, Branch의 再編成과 投資市場의 再編成

1974年～1975年的 恐慌이래 그룹企業들은 生產을 多樣化시켜서 2 가지 目的을 이루려 하고 있다：危險을 分散시키고 動態的 發展의 擴大를 實現하고 具體的으로는, 利潤性이 弱한 產業區間과 Branch에는 投資를 節減하고, 可能성이 있는 部分에 投資하여 領域을 增加시켰다. 프랑스에서 販賣額面에서 4위이며, 從業員面에서 3위인 La Lainière de Roubix의 活動으로 證明될수 있다. 同企業은 傳統部門 및 Branch(실내기 천짜기 등등)에 대한 投資를 줄이고, 成長率이 높은 곳에(工業的 必要를 위한 織物, 室內裝飾을 위한 織物, 스포츠를 위한 織物 등등) 投資로 多樣化시켰다.

위의 多樣化는 織物의 化學工業化를 뒷받침 하여주는 研究, 開發의 進展의 竝行되어, 可能하였고 다시, 織物에 聯關된 새로운 投資領域(產業部門과 Branch)을 形成시켰다.

31) Philippe Lemaitre, Le Monde du 24 Avril 1981.

32) Rhône-Poulenc, Rapport d'activité, Paris, 1978, P2.

33) 그룹企業에 의한 大規模의 백화점이 設立되었다.

Dollfus Mieg도 거의 같은 方式으로 恐慌에 對備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政策은 織物產業의 테두리를 維持하면서 傳統投資 보다는 動態的投資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 첫번째 化學企業인 Rhone-Poulenc은 1974年 아래赤字를 記錄하고 있는 化學纖維生產을 오히려 基礎로 삼아 新製品을 開發하여 多樣化하고 있다. 즉, 化學工程으로 새로운 폴리에스테르 X403, “피그망테”된 폴리망테르, 실IF80을 開發하여, 새로운 投資領域도 열고 既存纖維와 合成하여 投資領域을 擴大하였다.

高度化된 資本構成을 이용하여 產業區間과 Branch를 再編成하여 恐慌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Agache-Willot는 130개의 子企業을 保有한 大企業이다. 恐慌이 發生하자, 1967年에 다른 企業들을 合併하여 生產資本의 巨大化, 高度化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 ① 政策轉換의 能力은 革新的인 發展樣式의 適用의 可能함을 證明하였다.
- ② 뒷받침 할 수 있는 資本力도 確認되었다. 따라서, 投資領域의 多樣化를 极端화시키는데 成功할 수 있었다. 즉, 投資領域을 國民經濟밖으로 擴大하는 資本의 國際化를 實現하였다.
- ① 現地에서 企業의 創立을 하고 ② 現地에서 企業을 買入하거나 出資도 한다. ③ Licence의 輸出 및 下請을 주기도 한다.

위의 投資에 의해 既存의 商品市場의 擴大를 기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投資의 條件이 有利한 곳에 投資市場을 開拓할 수 있었다.

資本의 國際化는 그룹企業의 南美, 스페인, 이태리, 튜니지아, 검은 아프리카 등에 投資함으로써 實現되었다. 이들의 活動을 Rhone-Poulenc의 경우로 證明하여 보면

그림표

Phone-Poulenc 生產의 配分表 (%)

	1974	1975	1976	1977	1978
국내를 위한 生산	48.5	45.5	42.5	41.5	40.5
수출 生산	51.5	55.5	28.0	29.5	30.1
해외에서의 生산			29.5	29.5	29.1
총 합	100	100	100	100	100

DAFSA ANALYSE, Rhone-Poulenc, 1980, PARIS p.11.

國內消費를 위한 生産은 점점 弱해지고, 또 輸出을 위한 生産도, 1975년만 向上되었을 뿐, 더욱 下落되었다. 1976年부터의 輸出된 資本에 의한 生産은 그룹전체의 것에 29%를 넘고 있다. 새로운 傾向은 Dollfus Mieg의 活動으로 確認되고 있다.: 同그룹企業의 海外生產은 70年初에 全

體生產의 20 %를 차지하였으나, 比率이 2年後 25 %로 向上되고, 1976年에는 29 %에 이르고 있다. 이들에 의한 海外投資는 織物生產單位를 移轉시킨것이 아니고 生產活動을 延長시킨것에 지나지 않았다.

海外投資는 產業區間과 Branch의 再編成과 2重投資活動을 形成하였다. 결과적으로, 利潤性이 높은 領域을 中心으로 投資市場을 再編成하고 擴大하여 投資의 어려움을 克服하려하였다.

恐慌을 打開하는 目的으로 계속 시도된 擴大의 方式은 勞動의 再生産을 위한 道具로도 다음과 같이 使用되고 있다.

(3) 勞動施行의 進步

原料를 加工시키고, 또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여, 市場을 開拓한 結果로 再生産의 過程에서 勞動이 介入하게 된다. 介入되는 狀況이 勞動施行을 의미하고 勞動施行의 樣式도 決定한다. 따라서 大衆消費社會의 形成은 勞動施行을 進步시켰고, 易으로 뒷받침하게 한다. 또 勞動施行이 生產資本의 組織化와 並行되어, 再整備되고 혹은 새로운 樣式으로 再編成되어 恐慌을 打開하는 道具가 된다. 資本集約의in 產業이 勞動의 質을 높일 수 있는지 寄與한다. 프랑스 織物產業의 경우에도 투명하게 나타난다. 化學, 合成纖維의 出現은 生產資本의 組織化에 比較될 수 있는 變化를 요구하고 Computer와 自動化가 生產工程(실품기, 천짜기 등)에 利用되어, 더욱 確認되었다.

위의 狀況은 간단하고, 一般的인 機械로 交替시키고 있다. 勞動의 質은 向上되며, 勞動의施行의 樣式이 複雜化되며, 또 高度化된 結果로 여러가지 層을 이루게 된다. 다음의 效果를 본다. 우선, 勞動 生產성이 向上된다.

① 機械設備의 專門化에 따른 肉體的 勞動, 精神的 勞動을 하나의 目標에 集中可能하도록 體系化시켰다. 體系化는 勞動生產性을 向上시켰다.

② 勞動組織의 合理化와 再整備는 Know-how, 經驗 工業文化를 形成시켜서, 勞動生產性은 자연히 向上된다.

肉體勞動의 重要性은 弱해지고 勞動施行의 進步로 勞動의 形態가 多樣化되었다.

進步된 結果를 보면; ① 多樣化는 獨創性 있는 勞動을 可能하게 하였다.

② 生產性이 刮目하게 增加하였다.

따라서 勞動施行이 계속적인 技術開發과 經營革新으로 勞動의 擴大 再生産도 이룩하고 發展樣式의 形成을 위한 主軸機能이 發揮될 수 있었다. 施行의 形態는 계속 革新되어 恐慌에 대한 對備에 使用되었다.

VII. 結論

프랑스 織物產業은 恐慌에 對處하여 發展의 擴大와 高度化로, 프랑스 織物經濟史에서는, 獨創性 있는 戰略을 樹立할 수 있었다. 즉 恐慌을 피하지 않고 克服하려 하여 어느정도의 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戰略에서 除外되었던 部門에서 基因한 問題點으로 織物產業은 여전히 恐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그룹企業의 系列化에서 脫落한 企業들은 甚한 財政難에 빠지게 하였다. 이들의 財政難은 大企業의 戰略에 順應치 못함을 의미하였고, 國民經濟全體로서는 脱白현상이 일어났다. 다음으로는 支出이 源泉的으로 媒縮되어 生產의 高度化는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 國內織物需要는 停滯되었고 1981年에는 減少되어, 國內市場은 擴張되지 않았다. 國內市場의 韶音이 더욱 드러난 것은 織物產業의 競爭力이 아직 弱하였다. “後進” 工業製品의 浸透에 대한 對備는 成功하였으나, 다른 先進工業製品과의 競爭에서 不利하였다.

이와같은 2重的 狀況은 우리에게 恐慌에 대한 概念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恐慌이 繼續의 一연 産業發展이 絶斷을 이룬 狀態라는 점에서 同意할수 있으나 恐慌에 對處할수 있는 方法에는 序論에서 提起되었던 2가지 質問에 다시 돌아온다.

- ① 恐慌은 단순하게 産業發展을 封鎖시키는 狀態인가?
- ② 恐慌은 위와같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發展을 위한 再整備期間인가?

2가지 質問에 선뜻 답하기 힘든점이 恐慌속의 프랑스 織物產業의 狀況이고, 恐慌을 위한 暖昧한 概念이다.

그렇다고, 시도되는 후자의 方式(1)을 使用하지 않고, 保護貿易主義에 依存한 發展樣式으로 復歸시켜 停滯를 反復시킬수도 없고 또, 巨大化와 高度化로 進展된 發展樣式을 돌이키는데 너무 危險이 많은 이상 다음 2가지 方法에 의해 프랑스의 새로운 發展樣式도 完成시켜보고 恐慌이 가진 暖昧한 概念의 明確化에 寄與할것이다.

첫째로는 生產의 高度化와 勞動의 進步가 계속 進展되어 賃金이 原價에 차지하는 比重이 저賃金의 效果를 나타낼 정도로 弱化되었다. 결국 國際競爭力에 多樣性을 가질수 있다. 다음으로는 海外市場의 開拓도 중요하지만 織物消費에 의한 國內市場이 프랑스 織物產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市場이므로 開發되어야하고 또 지켜져야 한다.

위의 方法이 試圖된 生產樣式을 固着化段階에 이르게 하면, 프랑스 織物產業도 安定이 되고 對處해온 恐慌에 대한 概念의 정립에 가까워 질것이다.

